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성문학회 창립총회 ... 회원 20명, 분기별 정기모임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회가 없던 고성지역에 고성출신 시인과 작가 등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성문학회'가 창립했다.

고성문학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고성문화의 집에서 회원 20명과 송훈석 국회의원과 황종국 고성군수,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 황연인 고성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준 시인을 비롯해 김금분 시인(강원도의원), 김준만 시인, 김창균 시인 등이 참석해 새롭게 창립한 고성문학회를 축하했다.

이선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부터 지역 출신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여덟 번의 모임을 가진 뒤 마침내 오늘 창립식을 갖게 됐다”며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문학회를 잘 이끌어 지역문화 진흥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문학회는 앞으로 1월, 4월, 7월, 11월 넷째주 토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창작 활동과 함께 향토문화 창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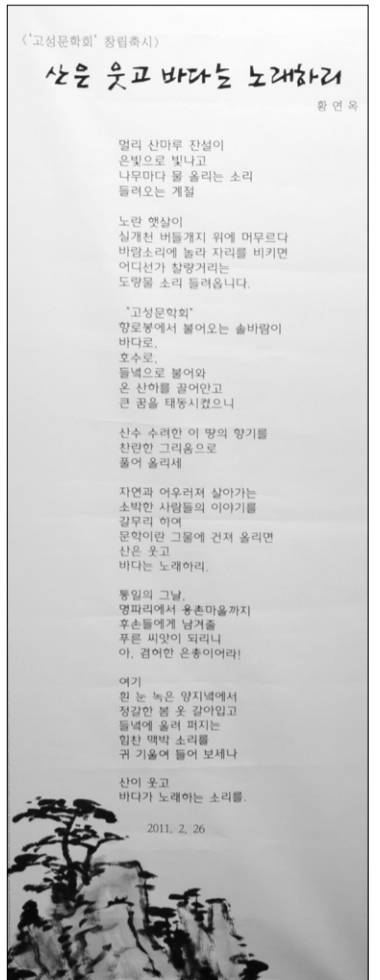


지난달 26일 고성문학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한 각종 문학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성문학회 회원 명단이다. △회장 이선국 △부회장 황연옥 △김석록 △남숙희 △김향숙(사무국장) △이미

복 △장은선 △조인화 △남영선 △함흥일 △전순선 △최광호 △최기종 △김담 △홍의현 △김창인 △신경희(재정간사) △박명호 △김태훈 △최문석, 최광호 기자



황연옥 부회장의 창간 축시

“희망이 있으면 꿈은 꼭 이뤄진다”

제18대 고성교육지원청 김경로 교육장 취임식

신임 제18대 고성교육지원청 김경로 교육장 취임식이 지난 2일 오전 10시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로 교육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건전하고 역동적이며 신뢰받는 고성교육지원청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김 교육장은 우선 “직원들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또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직원을 끼리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끝으로 “꿈을 갖는 사람이 되자”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이 있으면 희망



지난 2일 고성교육지원청 제18대 김경로 교육장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은 취임식 직후 직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꿈은 꼭 이루어 진다”고 했다.

김경로 교육장은 1951년 8월 춘천 출생으로 춘천고, 강원대, 강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

다. 지난 1974년 양구 대암중학교를 초임으로 나전중·흥천여중 교감, 내촌중·흥천여중 교장 등을 역임했다.

최광호 기자

도민체전 입상자 포상 재개

고성군체육회 2011년 정기총회 개최

고성군체육회(회장 황종국)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고성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이사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변동보고 및 2010년도 감사보고, 사업 및 결산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 새 이사 임원으로 위촉된 한창호 게이트볼연합회장과 김넬리아 다문화가족 대표가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당연직 부회장에는 지명호 고성군생활체육회장, 감사에는 이행용 고성군테니스협회장이 합의 추대됐다.

이어 기타 토의에서는 전국 단위 입상자 예우 및 হল리분교

스키부 지원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고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선거거법에 의해 입상자에 대한 포상이 제한돼 제대로 된 포상이 없었다”며 “2010년부터 도민체전 입상자 금메달은 7만원, 은메달 5만원, 동메달 3만원을 포상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점차적으로 체육장학금 등 다각적으로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알프스리조트의 영업 중단으로 홀리분교 스키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달 28일 2011년도 고성군체육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국군 기무부대로!

경조사 · 모임 · 구인 · 구직 · 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